# 조계종 '조선일보 구독거부' 철회

## 조선일보 사장·주필 등 지관 스님 사과 방문
## 조계종 "왜곡·편향보도 지속적 대응할 것"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한 달여 가량 펼쳐 온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철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양해를 구해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며 "11월 5일 전국 본말사 및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철회 입장을 밝히고 동참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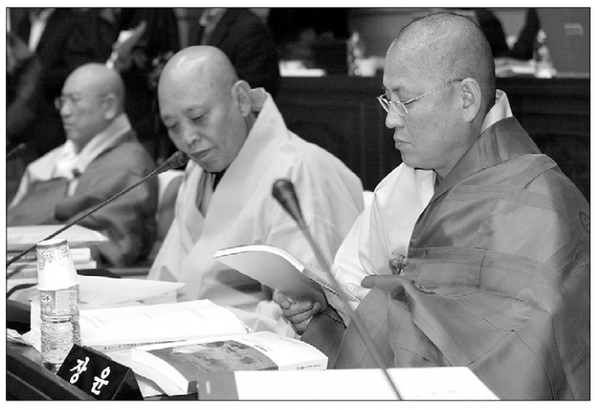
조계종은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추측성 음해와 왜곡 보도를 함으로써 불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5일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결의했다. 조계종은 구독거부 운동을 펼친 한 달여 간 현수막 게시, 스티커 80만장 · 홍보물 40만장 배포, 서명운동 3만여 명 동참이라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실제 구독중단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

구독거부 철회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전격적인 사과방문으로 이뤄졌다. 방상훈 사장과 강천석 주필, 김창기 편집국장은 10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사과 방문하고 "이번 사건을 스스로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 널리 양해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 강천석 주필은 "불교가 어려울 때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스님과 불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어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번 구독거부 운동은 한국 종교 · 언론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조계종의 교권수호의 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론의 왜곡보도나 종단의 주권을 침해하는 편향보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독거부'라는 대응 방식이 불교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단 입장에서 교권을 돈독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왜곡보도에 대한 각성을 위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와 정기적인 언론 모니터를 실시하는 한편 법무법인 바른(대표 김동건)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언론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11월 1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에는 신정아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장윤스님(사진 오른쪽)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 보성 스님 등 원로의원 추대

###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175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종회는 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종헌 · 종법 개정안, 각 위원회 위원 선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1일 개회한 중앙종회는 보성 종산 선진 성수 스님을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천하고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종호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정념 스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원오 · 세정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호법부장 서리 정만 스님에 대해 만장일치로 임명 동의했다. 정만 스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세로 종단과 종도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선출직 임원에는 일면 영조 현응 정우 스님이, 교육분과위원회장에는 원담 스님, 종정감사특별위원장은 광조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장적 스님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회는 종정감사가 끝난 후인 11월 5일 속개한다. 여수령 기자

## 불교방송 홍승기 사장 사표

임기 8개월 정도를 남겨둔 홍승기 불교방송 사장이 11월 2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제7대 사장으로 임명된 홍 사장은 2008년 7월 5일까지 前 이성언 사장의 잔여기간동안 사장직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불교방송 정관상 차기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이사장 영담 스님이 사장 직무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방송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추천으로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한편 불교방송은 11월 1일 보도국장에 선상신 해설위원을, 총무국 총무팀장에 신범식 사업부 사원을 인사 발령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천태종-중화종교문화교류協

## 불교 교류 '손잡았다'

### '천태종 성전' 출판 기증식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천태종 성전> 중국어판 5000권을 출판해 중국에 기증하고, 관문사-북경 영광사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한중 불교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태종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는 10월 30일 중국 북경 영광사(靈光寺) 불아사리탑 앞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등 천태종 스님 20여명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장견영 부국장, 박영대 주중한국대사관 문화원장 등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태종 성전> 출판 기증식'을 봉행했다.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와 뜻을 모아 도서 출판 등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불교도서의 기증과 보급에 착수하게 됐다"며 "한-중 장기 교류사업의 첫 번째 결실인 중국어판 <천태종 성전> 기증을 계기로 중-한 양국 불교가 날로 발전하고 세계 사상계를 선도해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로운 청정세계로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어 장견영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부회장도 "<천태종 성전> 중문판 출간을 통해 우리는 한국 천태종의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삼대지표를 이해했으며, 한국 천태종의 사상교의 및 수행실천에서 이룩한 업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 왼쪽)이 중국불교협회 회장 일성 스님에게 <천태종 성전>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천태종

출판 증정식에 앞서 천태종 서울 관문사와 북경 영광사는 두 사찰간 불교 교류 우호를 증진한다는 의미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과 중국 국가종교국 장견영 부국장을 증명 법사로 관문사 주지 정산 스님과 영광사 방장 상장(常藏) 스님이 자매결연서에 서명했으며, 1년에 두 번 서로 왕래하며 교류하기로 했다.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에 전달된 <천태종 성전>은 천태종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법화경>, 한국천태종사 등이 담긴 천태종 소개책자. 한국 천태종과 중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교류의 첫 결과물로 중국 내 주요 사찰, 도서관, 관공서 등에 배포된다. 김주일 기자

## 중앙승가대 후원회 발족
## 5천원 구좌갖기 운동 전개

2009년 개교 30주년을 맞는 중앙승가대가 명실상부한 수행 · 교육 · 연구 도량으로 거듭하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한다.

중앙승가대학교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정념)는 10월 31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승려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가 불교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불사를 위해 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족식은 11월 20일 오후 1시 경기도 김포 중앙승가대학교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봉행된다.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월우 스님은 "후원회 출범과 함께 10만 대중의 풀뿌리 모금 참여를 목표로 '5000원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회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중앙승가대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학인 스님들의 등록금 지원 및 연구 수행풍토 조성 △교원확보 및 연구활동 보조 △국내외 학술교류 확대 △교직원 재교육 △필요시설 건축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의 투명화를 위해 후원회를 학교법인 산하에 두어 예결산 보고 및 감사를 통해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백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원자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정도 음악회 등을 개최해 후원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교육불사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031)980-7892

여수령 기자

### 공주 마곡사 주지후보

## 법용 스님 선출

후보들의 '청정선거 선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 주지후보에 법용 스님(보령 선림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6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혜원)는 10월 31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선거인단 145명중 122명이 참가해 64표를 얻은 법용 스님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원혜 스님은 55표를 획득했으며 무일 스님은 1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법용 스님은 "책임감이 무겁다"며 "마곡사를 승가의 본분인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청정도량으로 가꾸어가겠다. 마곡사 문중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공정선거를 결의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른 선례를 남겼다"며 "투명선거는 제도가 아닌 출가자의 본분을 바로 아는 사고의 전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지후보로 선출된 법용 스님은 조계사 총무국장, 마곡사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령경찰서 경승실장, 보령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 낙산사 복원불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낙산사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불자여러분 모두에게 感謝의 안사를 올립니다.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시간이라고 했건만 지나도 새겨지는 것이 있기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는가 봅니다.

낙산사 복원의 결실을 이 가을에 아뢰게 되어 至難한 시간의 의미가 감사와 고마움의 벅찬 감동으로 바뀐 이 마음이 곧 저희들의 바람인 것을 낙산사 복원불사에 도움을 주신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에 감사드립니다.

한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그 마음으로 국민 모두의 도량이 되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온누리에 회향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낙산사 주지 정념** 합장

**낙산사 원통보전 낙성식 · 범종 타종식**

● 일 시 : 2007년 11월 16일(금요일 음 10월 7일) 오전 11시
● 장 소 : 낙산사 원통보전 ☎ 033)672-2447~8

불사회향 : 심검당, 선열당, 취숙헌, 홍예문, 홍련암 연하당, 해우소, 낙산실비노인전문요양원, 낙산유치원